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 2. 다시 교회로 (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죽음의 그림자

(요 11:16)

이종윤 원로목사

우리는 도마를 보고 '도마는 의심쟁이다'라고 하면서 도마를 믿음 없는 사람으로 쉽게 간주합니다. 그러나 도마의 과거가 어땠는지 마지막에는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한 것을 보면 인간을 어느 한 부분으로 평가하면 안 될 것입니다.

1. 도마의 고백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하셨습니다(요 11:7).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제자로서는 예수님을 안 따를 수도 없고 따라가자니 죽음의 길이 될 것이므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그 자리에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가 어떠한지 도마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갈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다가온 십자가를, 이 엄청난 고통을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 대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사실이 그로서는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 11장 16절은 도마의 정직성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말씀은 도마의 충성스런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무슨 일이 다가올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도마이지만 이래도 죽을 것이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살려주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죽기를 작정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도마는 충성스러운 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도마가 매우 용기 있는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떤 죽음을 당할지 그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잡히면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다녔다는 죄명으로 죽음을 당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죽음의 자리로 나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결국 도마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하여 산 자요, 주님을 위하여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2. 죽음과 부인의 원리

죽음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자리에까지 간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Union with Christ) 함께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옛사람을 십자가 밑에 장례 치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제 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는 시간입니다.

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이 죽는 그 순간부터 신앙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아래서 죽으므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스스로 노력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는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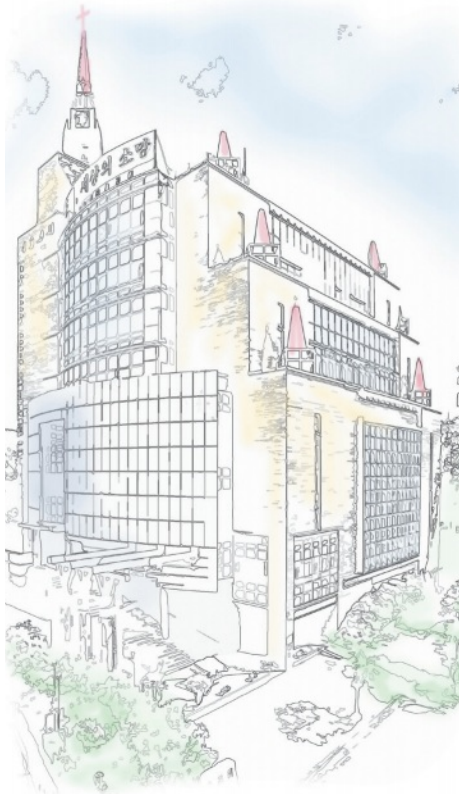
3. 예수님의 자기 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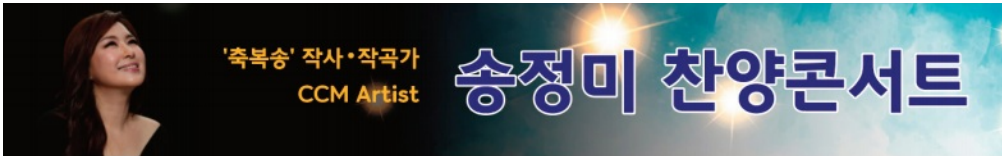
부인의 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잘 관찰하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까지 버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만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무엇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 욕심이라도 버려야 하겠는데 아직도 우리에게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이 가장 옳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죽음의 원리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패자의 원리요 비겁한 자의 원리가 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부활을 가져오는 원리가 됩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큰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롬 6:8). 주님과 함께 죽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살 것이므로 자기를 향해서는 죽고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새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야 산다는 원리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 때에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1월 18일(금) 오후 8시, 본당

사명자대회본부(위원장 유충기 장로)는 2022 사명자대회의 일환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새가족 초청의 기회를 가지고자 '송정미 찬양콘서트'를 오는 11월 18일(금) 오후 8시에 본당에서 개최한다.

송정미 사모는 CCM Artist로 연세대 성악과를 졸업했으며 '축복송' 작사 작곡가이다. 제8회 극동방송 주최 복음성가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하였고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숭실대학교 음악원 교회 음악과 주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매일 오전 10-12시 CBS JOY4YOU '송정미의 축복송'과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극동방송 '송정미의 지금 여가예'를 진행 중이다.

많은 성도들이 새신자들을 초청하여 함께 은혜의 시간을 누리길 바란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59회 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 공개 세미나

10월 24일(월)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재)한국기독교학술원 제59회 학술 공개 세미나가 10월 24일(월), '북한의 기독교 - 선천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북한 선천에서 105인 사건을 비롯해 주일이면 온 도시가 철시(撤市) 현상을 일으킬 만큼 성수주일을 비롯해 많은 인재를 배출한 선천을 연구하여, 이 시대의 신앙적 귀감을 삼고자 한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3 수험생 자녀를 위한 수능기도회

11월 17일(목)
오전 8시 30분 - 17시 45분
웨스트민스터홀

2023년도 수험생을 위한 수능기도회가 11월 17일(목)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시험 시간표에 맞춰서 진행된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란다.

2022 성경암송대회

- 일시 : 11. 12(토) 일반부 본선
11. 13(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1장-8장
- * 암송 수상자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 * 암송대회 신청 성도들은 11월 5일까지, 각 교구 간사들이나 옥종호 집사에게 신청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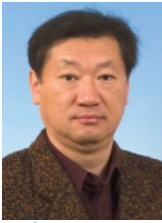
- 지난주 우리 교회는 -

- ① ② 지난 '2022 서울교회 사랑의 바자'에 침구류를 기증하신 돈디코리아의 최두현 장로님(청암교회)께 교회를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날 장로님을 대신하여 아들인 최근우 집사님께서 받으셨다.
- ③ ④ ⑤ ⑥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더불어 배움재단이 주최한 '2022 우리마을 공감 음악회'가 지난 주일 오전 11시 40분에 웨민홀에서 열렸다.



2022 사명자대회

우리 모두 사명자의 삶을 갖도록 합시다!



홍창훈 집사
(사명자대회
차량분과)

10월은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서울교회에서는 가장 뜻깊은 사명자대회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설립 기념주일까지 50일 동안 서울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 부흥을 위해 예배드리며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거룩한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대회를 위해 본부장님과 10개의 분과장님들이 정성과 노력으로 계획하고 준비를 잘 하였고 벌써 3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그동안 교회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

들이 일치단결하여 전도로 부흥의 불씨를 일으켜 예전의 서울교회의 영광된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나온 자신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여 진정한 신앙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사명자로서의 전도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신앙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결한 소명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제가 몸담고 있는 디자인팀에서는 대회 홍보를 위해 교회 내·외부의 배너와 기도카드·포스터 등 여러 제작물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차량부에서

는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새벽부터 나오셔서 성도님들의 차량 안내를 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로지 사명자대회를 통해 서울교회의 재건과 부흥을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대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마음이 고난한 자를 안아주며 내면으로부터 뜨거운 영성이 샘솟아 열정과 정성으로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라는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에 내리신 지상명령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매일 사명자의 삶을 갖도록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며 새롭게 비상하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 숨 쉬는 서울교회가 되도록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2022 성경암송대회

성경암송대회를 준비하며



손태현 집사
(8교구)

3년 전 하박국서 암송대회를 준비하는 아내를 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성경암송대회 공지를 보며 마음에 울림이 생겼습니다. 교회 회복의 과정에 한 걸음 보태고 싶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금년 말 은퇴를 앞두고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아 전도회와 선교회 연합팀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모임을 갖고 각자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나 점검도 해 보면서 성경암송의 작은 기쁨을 맛보게 되고, 왜 여러 권사, 집사님들이 지속적으로 대회에 참가하시는지 이해와 공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암송 범위인 잠언 1장-8장까지를 1장씩 나눠 암송 중인데 지혜와 명철을 중심으로 교훈적인 내용이다 보니 이종윤 원로목사님



이 늘 하시던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의 맛을 체감합니다.

그 중 제가 맡은 잠언 7장은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는 아주 준엄한 말씀인데 나이 들어가는 이 순간까지도 마음까지 정결하게 가지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회개할 것 많은 인생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쓰고 또 쓰고 매일 반복 암송했더니 벌써 11월 은퇴의 날이 가까워집니다. 젊은 날에 얼마나 허망한 욕망에 시달렸나 하는 회한과 함께 늦

게라도 깨달았으면 다행이라는 말씀으로 알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 잠언 암송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교회 성경암송대회는 분쟁 중에도 이어 온 전통있는 행사이지요. 대상을 여러번 차지한 성경암송의 달인 김진달 집사는 이번 연합팀을 벌써 2월부터 결성하고 암송을 독려하고 매번 참여의 폭을 넓히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에도 저에게 권면을 해주고 칭찬에 약한 저를 칭찬으로 이끌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김집사님뿐 아니라 교회 구석구석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일손들을 보태고 묵묵히 수고하는 많은 주변 분들을 보면서 봉사뿐 아니라 성경암송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성경공부의 열의들도 더 많이 가지셔서 서울교회에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생겨가기를 기도하며 대회 끝까지 열심을 내보려 합니다.



사랑하고 그리운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14일(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요양병원 방문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우리 교회 원로장로님이신 이웅선 장로님을 장석남 목사님과 유테서 사무국장이 방문하고 위로예배를 드렸습니다.



실버보드게임을 아세요?

문영미 선생(실버보드 강사)

‘살롬경로대학’에 실버보드게임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실버보드게임’이란 용어가 생소하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하던 윷놀이, 장기, 바둑 등, 이 모든 것이 보드게임에 속합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년층의 경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적인 놀이를 통한 지적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버보드게임은 노년의 단조로운 생활에서 자기 표현력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인지적, 정서적, 상호작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버보드게임의 활동을 통해 집중력과 판단력, 단기 기억력, 수리연산 능력, 관찰력 증

진, 공간 지각력을 증진 시키고 상호작용을 통한 원활한 대인관계를 증진 시키며 자존감 회복과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손자 손녀 온 가족이 함께 하는 보드게임을 통해 정을 나누며 가족 문화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버보드게임이 필요한 이유는 치매 예방과 노인 우울증 예방, 관계 형성 상호작용과 건전한 취미생활 등의 유익함이 있습니다.

호산나대학, 발달 장애학생 태권도 단증 취득



호산나대학은 9월 28일(수)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하는 태권도 1단 승단심사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단증 수여식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6월에 진행된 ‘국기원 승품·단 심사’에 참가한 호산나대학 학생 6명 전원이 합격함에 따라 단증 수여식을 가졌다.

단증을 수여한 가평군장애인체육회 이현구 이사는 “단증 취득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잘 따라 주었고 참여 학생 전원이 단증을 취득해 너무 기뻐했다. 앞으로 가평군장애인체육회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축하와 격려를 해 주었다.

본당 LED 모니터 설치공사

24일(월)부터 본당 LED 모니터 설치공사 관계로 일주일간 새벽기도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는 웨민홀에서 진행된다.

동정

- 식사 제공 : 1교구 임대훈 집사 옥희숙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한걸음 한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가는 순례의 나날이 되게 하시고, 입술의 신앙보다 행함의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신 목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파송선교지와 농어촌교회를 돌보아 주소서.
3.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고통받는 모든 곳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세계 여러 곳의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고, 이 땅은 복음화된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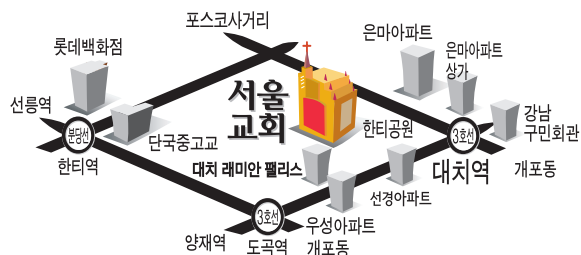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0월24일	월	눅 14-16		렘 37-46	
10월25일	화	눅 17-18		렘 47-52	
10월26일	수	눅 19-20		애 1-5	
10월27일	목	눅 21-22		겔 1-7	
10월28일	금	눅 23-24		겔 8-15	
10월29일	토	요 1-2		겔 16-20	
10월30일	주일	요 3:1-4:45		겔 21-27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본당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